

# 오피니언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한수산



일흔이 가까운 일본인 친구는 그날 신주쿠의 고히비딩에서 지진을 만났다고 했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서 버리는 바람에 친구는 45층을 걸어서 내려와야 했고, 고히비딩이 사라진 압축의 거리를 다시 4시간 동안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책꽂이가 모두 넘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된 집으로 돌아온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는 더 묻지 못했다.

9·11테러에 빗대어 일본인 스스로 '3·11 쇼크'라고 하는 일본 동북부의 대재앙으로부터 한 달여, 그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많은 겸허함을 가르쳤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했던가. 그러나 일본인이 겪어내고 있는 참담함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했던 것은 다만 절망과 무력감만은 아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해의 현장을 지켜 보면서 오히려 '인류의 진화'를 말하는 희망의 목소리였다. 영국의 한 일간지는 제목으로 '간베레 님프(히네라 일본)'를 뽑으며 일본을 격려하는 인류애를 보여주었다. 님프란 속어로서 폭동도, 약탈도 없이 보이며 일본인의 자제력과 침착한 대응을 일

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 모습들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어떤 가치와 유형을 보여주는 감동으로 세계 속으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지난 세기 인류가 한결같이 추구했던 가치는 모더니즘의 가치들이었다. 19세기의 구습에서 벗어나 문명화 보편성(유니

## 일본 침몰인가, 모더니즘의 침몰인가

버살리티)을 인류가 공유하면서 시작된 모더니즘은 인류의 근대화화 미덕으로 펼쳐지며 도시화, 기계화를 통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이룩해 냈다. 물질은 가치의 척도로 생각하는 생활의 편의와 그것을 통한 행복에의 추구가 그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의 근대화도 다르지 않았다. 서구화가 바로 현대화라는 물결 속에서 지역문화나 고유문화를 버티시킬 수밖에 없었다. 모더니즘의 가치와 미덕 속에서 흠뻑의 초가집은 적결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삶과 도식은

비판과 심문의 대상이 되었고 현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우회적 길을 걸었다. 우리가 상정하고 있던 여러 발전 모델 가운데는 '일본처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미 일본이 하지 않았는가. 일본이 했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는 얼마나 일본의 발전모델들을 따라잡기에 허둥댔던가.

그러나 지금 일본의 대재앙은 모더니즘이 지향해온 모든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통렬하게 성찰의 말을 건네고 있다. 어

디 그것뿐인가. 불행하게도 거기에는 인류의 진화를 보여주었다고 믿었던 일본의 초라한 실상도 있다.

잘못하다간 일본이 침몰해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본인 자신에게서 나오고 있다. 국가를 이끌어갈 주체적인 동력을 잃은 정치권에 대한 탄식만이 아니다. 너무나 재건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니 무엇을 하건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보인다. 심지어 소비를 부추기면서 외식도 좋고 총동구매도 좋다. '차라리 사재기라도 하자'고 외치는 신문칼럼마저

보인다.

그 가운데는 동물원 공짜관람도 있다. 그동안 문을 닫고 있던 유네스코 동물원을 비롯한 네 개 동물원이 4월 1일부터 다시 문을 열면서 '지진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무료입장을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10일까지 열흘 동안만 무료입장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나 지진피해자요" 하면서 동물원에 들어와 공짜로 호랑이 구경이라도 하라는 말인데, 저 대재앙 속에서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석탄이나 기름 같이 자연으로부터 얻어낸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그 대체수단으로 부상한 것이 원자력이다. 그러나 원전이 안전성에 있어서 결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는 '삼척핵발전소 백지화'와 같은 원전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을 개발하며 '만화탄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오펜하이머 박사는 '원자탄은 평화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졌다'고 했다.

이웃의 불행에서 찾아야 하는 교훈들은 더 가슴 아프다. 그러나 반면교사로서, 일본은 재앙에 대한 탄식만이 아니다. 너무나 재건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니 무엇을 하건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보인다. 심지어 소비를 부추기면서 외식도 좋고 총동구매도 좋다. '차라리 사재기라도 하자'고 외치는 신문칼럼마저

〈작가·세종대 국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 칼럼

정 동 환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모두가 기다리는 봄이 왔지만, 이런 봄이 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알러지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봄철이면 발생하는 대부분의 황사와 번덕스런 날씨로 인해 알러지성 비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알러지성 비염이란 코 안쪽의 점막이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비염으로 연속적인 발작성 재채기, 계속 흘러내리는 맑은 콧물, 코가 답답해지거나 막히는 3가지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이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약을 며칠 먹고 쉬면 나아졌다가,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면 다시 재발 되곤 해 결국에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체질을 중요시하는 한방 치료가 매우 효과적인데 코에 나타나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와 몸을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면역력과 체질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알러지성 비염의 치료에 있어 환자 스스로의 일상 생활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꾸준한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하고, 실내온도와 습도의 유

## 봄의 불청객 알러지성 비염

그 밖에 눈이나 목 안이 가렵거나 눈물이 나거나 눈이 부시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밤새 맑기가 힘들어 지거나,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다.

알러지성 비염의 증상은 감기의 초기 증상과 비슷해서 구별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감기가 오한·발열·기침·가래 등이 주 증상인데 반해, 알러지성 비염은 코가 막히고 콧물과 재채기, 코나 눈 주위의 소양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감기는 콧물이 끈 끈하고 노랗게 나오며 몸에 열이 있는 경우가 많고 1주일 정도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알러지성 비염은 콧물이 맑아 불처럼 흐르고, 몸에 열이 있는 경우는 드물며 자주 재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알러지성 비염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양하다. 양방에서는 잡초, 꽃, 잔디, 나무 등의 꽃가루, 곰팡이, 먼지, 진드기, 담배 연기나 대기 오염물질 등의 알러지 유발 인자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즉 봄 밖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한 방에서는 흡입되는 찬 공기를 효율적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어야 하는 코와 기관지가 찬 공기를 데울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서게 되면 이상이 생긴다고 본다.

알러지성 비염은 치료가 어렵고 재발

지에 신경써야 하며(실내공기를 약 40~60%의 습도를 유지),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 목욕이나 샤워를 한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헤어드라이어 등으로 빨리 말리도록 해야 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식생활도 돼지고기, 닭고기, 물고기, 고기, 달걀, 우유, 라면과 같은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은 알러지성 비염이 치료될 때까지 피하고 대신 채소류를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될 수 있으면 현미밥을 먹는 것이 좋으며 콩류, 감자류, 해초류, 견과류도 좋습니다.

편식과 과식은 하지 말아야 하며 식사는 자기 양의 약 80%정도를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음주도 피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 '만병의 근원이 감기'라는 옛말처럼 알러지성 비염 역시 감기로 인해 시작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만약, 감기에 걸리게 되면 적절한 휴식과 치료로 감기가 알러지성 비염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소 알러지성 비염이 있었던 사람은 봄이 되면 미리 한약을 복용하거나 침을 맞아 두는 것도 비염 예방법이 된다.

〈월성 원광한방병원 원장〉

## 기 고

우 제 길



1992년 4월 옛 전남도청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정리를 하던 중 보물을 하나 발견했다. 광주 의 정체를 담고 있는 광주읍성터가 바로 그것이다. 광주읍성터는 지적도 상에도 흔적이 나타나 있고, 광주읍지(光州邑誌)에 전남도 관찰부가 무덕전(武德殿) 자리(지금의 상무관)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었지만 너무나 뒤늦게 찾게됐다.

## '광주읍성 門' 복원으로 도심재생을

일본이 통감부를 두고 한국 병탄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1907년 내각령 제1호 '성벽처리위원회규정'에 따라 1908년부터 본격적으로 허물어 1916년에 철거가 됐다. 철거된 성벽자리를 따라 도로가 개설되면서 광주읍성 성곽은 형태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구한말이 지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항일의병투쟁을 일본제국주의가 소위 '남한폭도대토벌작전'으로 진압되면서 철거되기 시작했다. 광주읍성의 원형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만 것이다.

그동안 광주읍성을 복원하려던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1년 광주 동구청은 광주읍성 및 성문 유적 복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남쪽 진남문(鎭南門·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포함)에 대한 문헌 및 현지조사를 전남대학교에 의뢰했다.

또 진남문과 양쪽 약 30m 성곽을 복원하고자 예산(문화재청 지원40억원, 시·구비 30억원)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대선(大選) 공약으로 문화수도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거론되면서 역사적인 복원의 꿈은 뒤로 밀려

났다.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어번폴리(Urban Folly)'로 세계적인 건축가를 13곳에 가비미적인 건축물을 세운다 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예술적 충족을 가져다 줄 것이며 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 無 等 鼓

광주의 지난 역사를 새겨볼 수 있는 성문 복원은 바로 현대미술의 설치작품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광주읍성 성문이 복원된다면 '어번폴리'의 세계적 건축가들의 작품과 함께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이뤄지는 모습으로 문화수도 광주의 도심은 세계적인 명소가 된다.

서울의 숭례문(崇禮門)이 다시 복원되는 이유를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다. 각각의 독특한 작품과 함께 성문의 복원을 고유한 시각으로 재해석,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을 크게 기대하며 과거 광주읍성문의 복원사업은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획기적인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광주읍성 성문 복원에는 많은 예산과 공력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소홀히 여겨, 광주읍성 성문 복원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됐다. 〈서양화가〉

## 시 설

## 신공항 후폭풍에 호남권 다치는 일 없어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후폭풍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가 영남 민심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과학벨트를 영남권에 쪼개 나눠주고 LH도 경남·전주로 이전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걱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와 비공개로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져 기우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이날 비밀 면담에서는 두 단체장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구·경북에도 분산해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부산·경남 광역단체장과도 면담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갈지도 관사다.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갈수록 성장동력 떨어지고 있는 영남권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하지만

영남 민심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특정지역에 편중시킨다. 이는 또 다른 심각한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장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지금 호남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KTX 광주~목포 구간의 '저속철'이 현실화되고, 각종 지역 현안사업이 지지부진하는 등 현 정부 들어 호남 출세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호남민심을 아예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신공항 백지화 이후 취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지역균형은 말 그대로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해야 달성된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지역 편중 정책으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논리가 신공항 백지화 이후 자칫 특정지역 몰아주기로 왜곡돼 타지역이 더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어린이 놀이시설 엉망, '돈' 핑계 대는 구청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은 주말이나 방과 후가 되면 많은 어린이들이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공간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만큼 놀이시설이 적절해야 하고 놀이기구가 안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281곳 가운데 43.3%에 달하는 122곳이 전문 안전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예술적 충족을 가져다 줄 것이며 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광주읍성이 아니다. 광주읍성 주변에 새로

일정 부분을 국가 등이 지원하자는 방향이 바뀐다. 앞으로 법이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게 표면상의 이유다.

하지만 속내는 20~30년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대부분으로 설치기준을 할 경우 교체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야 하니 최대한 버티보겠다는 심산이다. 안전이 최우선인 놀이시설을 담보로 이러한 알박금 수를 두고 있으니 합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행정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증거다.

만일 하나 대형 인명사고가 나가더라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각 자치구는 당사 전문기관에 설치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 예산 부담이 되더라도 현안의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현안 중의 현안이 아닌가. 법적 책임과 구교 지원문제는 그 다음 일이다.

**無 等 鼓**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태도가 기관 중에서도 생각관이다. 일본이 최근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 1500톤을 바다에 버린다고 발표했다. 자국의 바다에 오염수를 버려도 말든 우리가 딱히 상관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법정 기준치보다 최소 500배가 넘는 농도로 오염된 방사성 물질이다. 해류를 타고 우리해역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방류했다. 지난달 30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독도 관련 기술 도발에 이어 또 한번 한국민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다.

다 대진진 이후 미준위의 대재앙에 허덕이는 일본을 돕는 따뜻한 온정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감산을 덮었다. 일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본 국민들은 물론이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광복회 같은 반일단체들까지 일본을 지지할 태도에 놀라움을 느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다케시마는 역사·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영토" 주장과 '죽음의 물'을 상의 없이 방류한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그릇된 처사에 우리 모두는 분을 삼킬 수 없다.

하지만 절대 흥분해서는 안된다. 우리 정부의 교과서 발표 연기 요구에 일본은 '우정은 우정이고 실리는 실리'라는 냉정한 대응을 했다.

우리로 이제 냉정을 찾아야 한다. 쓰나미처럼 덮어왔던 일본 돌기 성금을 독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성금으로 바꿔야 한다. 연례행사처럼 일본이 독도를 자극하면 냄비처럼 끓다 식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스켈레 대로 또박또박 독도 영토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이

문적으로 무장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인식을 시켜야 한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이른바 '북방4도'를 전격 반환함으로써 그곳이 러시아 땅이라는 인식을 세계에 심어준 일을 참고할만하다. 정부가 외교 차원의 한계가 있다면 전국민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

최재호 정부부처장 lion@kwangju.co.kr

**택시 뒷자석도 안전벨트 의무화.. 기사·승객 앞장서야**

최근 이용했던 택시 뒷자리에는 안전벨트가 눈에 띄지 않았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가족 시트로 덮여버려 사용할 수가 없었다. 택시 기사에게 물었더니 손님이 거치적거리다며 불평을 해서 가족 시트로 덮어버렸다고 했다.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준비된 벨트가 귀찮다고 불평을 한 승객이나, 승객들의 불만을 듣고 안전벨트를 감춰버린 택시기사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택시나 승용차도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제도의 시행했다 '내가 먼저'라는 의식을 갖고 안전벨트 생활화에 앞장서야겠다. ▶권혁조·광주시 동구 내남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로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淑喆 논설주간 申浚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조사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